



1945

해방 직후 미군 경찰대가 촬영한 용산 기지 일대의 모습

신주백 제공

용산 미군기지

글 조보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을사늑약 이후 1908년부터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정착해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뽕뽕한 주택가와 고층빌딩에 둘러싸여 있지만 도심에서 보긴 힘든 녹지 축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2017년 미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용산기지는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용산기지가 있던 자리에는 1992년 용산가족공원, 1994년 전쟁기념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서면서 변화는 이미 조금씩 진행돼 왔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기지의 모습을 시대별로 모아봤습니다.

1948

미군 점령 하의 용산기지. 현재 전쟁기념관 자리로, 아래쪽은 삼각지 르테리로 추정된다.



신주백 제공

1989

1980년까지 존재했던 미8군 골프장. 현재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다.



1994

옛 육군본부 자리에 개관한 전쟁기념관



2005

국립중앙박물관 조성 공사



2017

미8군 사령부 평택으로 이전 기념행사(위) 1942년 개장한 용산가족공원(아래)



전재원 제공

2020

길가에 개방된 미군 장교 숙소



남산 서울타워에서 본 용산 미군기지. 반달 숲에 둘러싸여 있지만, 녹지공간이 많다.